Global p/06
동큰 中처녀 억대 구혼광고

메트로 2014년 1월 7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추신수 평창올림픽 알린다

316일 만의 '소통회견'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취재진 춘추관에서 취임 316일 만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했다. 하날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는 발언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다만 '다양한 현안 문제의 대안을 제시했고 야권이 제기한 불통의 오해를 풀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선 정작 뚜렷하게 밝힌 게 없었다'는 등 시민의 반응은 엇갈렸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스포츠의 해? e스포츠 말달리자

전용경기장 '넥슨 아레나' 평일에도 만원·2014 롤드컵 국내 유치 "올해가 제도약 원년 될 것"

올해는 e스포츠가 각광받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초 소치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브라질 월드컵 등 굵직한 스포츠 게임이 잇따라 열리면서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넥슨은 국내 기업 최초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넥슨 아레나'를 개관했으며 서울시가 추진한 e스포츠 경기장은 올해 민 상암동에 세워질 예정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대한체육회에 e스포츠의 정식 체육 종목 인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6일 곰TV와 곰플레이어를 운영하는 그래텍은 세계 e스포츠를 겨냥한 새 브랜드 '곰 EXP'를 출시했다. 그래텍은 이번달 스타크래프트2 리그 'GSL'을 시작으로 4월에는 스타2 전 세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래텍 곽정욱 대표는 "한국 프로 게이머의 경기를 다시 보고 싶다는 해외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계 대회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곰TV 이용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일 정도로 우리나라 게임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다. 국내시장이 좁은 우리나라 기업에 해외 e스포츠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게임 중계를 보기 위해 '넥슨 아레나'를 가득 메운 관중들 /넥슨 제공

리그오브레전드(LoL)를 운영하는 라이엇게임즈는 자사 챔피언 대회 명칭을 월드컵에 빗대어 '롤드컵'이라 부른다. 이는 온라인게임이 스포츠 장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표현이다.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롤드컵을 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만 200만 명이 넘는 팬이 인터넷 생중계에 접속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T1'이 세계 우승을 했다.

라이엇게임즈 구기향 홍보팀장은 "e스포츠는 가족, 친지와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스포츠"라면서 "올해 롤드컵은 e스포츠 종주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돼 더욱 주목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e스포츠 열기에 힘입어 넥슨은 국내 기업 최초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넥슨 아레나'를 최근 개관했다. 지난 2일 열린 '피파 온라인3 챔피언십' 개인 16강전 경기 때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넘는 700여 명의 관중이 몰렸다. 자리를 잡지 못한 관객은 외부 스크린으로 경기를 관람해야 했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회는 e스포츠 예산을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16억원으로 167%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내년 4월에 개최될 국제 스포츠 회의에 국제e스포츠연맹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프로 게이머 출신 제정원 그래텍 e스포츠전략본부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외국인 프로 게이머 선수들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해준 일은 큰 의미를 보였다"면서 "e스포츠 성장을 계기로 게임도 하나의 훌륭한 스포츠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한반도 지진 2배 늘었다

지난해 2.0이상 93회 관측 사상 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 사상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했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모두 93차례 지진(규모 2.0 이상)이 발생해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빈번했다.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지진 횟수인 44.5차례보다는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규모 3.0 이상 지진은 17회, 사람이 느끼는 '유감 지진'은 15회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해에서 52회, 동해에서 15회, 북한 지역에서 7회 등 순으로 지진이 빈발했다. 특히 인천 백령도 해역과 충남 보령, 전남 흑산도 해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가장 강력한 국내 지진은 지난해 4월 21일 전남 흑산도 해역과 5월 18일 인천 백령도 해역에서 각각 발생한 규모 4.9 지진이었다.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2월 5일 경남 거창군 북북동쪽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5 지진이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양상을 볼 때 연속 지진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한반도 지진 활동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용성기자 /sy

통일은 대박…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

박 대통령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 담긴 부문별 국정운영 구상

우리경제 재도약—성장률 4%·국민소득 4만 달러 가능
설맞아 이산가족 상봉 북에 제안—북핵문제 해결 나설것
공기업 부채·방만경영·비리 등 잘못된 관행 반드시 고져야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3대 키워드 인 경제 활성화·안보·공공부문 개혁 등을 강조했다. 특히 프리젠테이션 따라붙은 '불통' 논란과 관련해 긴 시간을 할애해 답했다. 하지만 불통 논란을 씻어내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철도 파업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의 불통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걸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 구상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화두를 내세워 향후 3년간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 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민소득 4만 달러 목표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경제적 도약을 통해 자신의 최대 국정운영 목표인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 **공공부문 개혁**—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 편법 경영,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철도 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기업의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이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경제성장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역시 낮아질 것이 뻔해 공기업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후한 보수와 복지 혜택, 고용 세습 관행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공기업에 먼저 '메스'를 들이댐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

◆ **남북관계**—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일부용론', '통일위의론'을 정면 반박하고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으로 남북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조치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 간 동질성 회복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 세 가지를 내놓았다.

평화 정착과 관련해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등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 등 거론한 뒤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의 최대 장애인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한 남북경협,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남북 간) 공동 발전, 역내 공동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번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다.

◆ **외교**—독도 영유권 도발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급속히 냉각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역사인식 등에서의 일본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안타깝다"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뒀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앞으로 양국 국민의 지지와 우위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복리증진과 동북아 평화·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대마초 합법화 '위험한 논쟁'

기자 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미국에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을 빚어온 대마초(마리화나) 양성화 논란이 최근 재점화됐다. 대마초가 의료용은 물론 '오락용'으로 판매되고 주요 도시들이 일제히 판매 합법화 및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주는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최초로 대마초와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과자류의 판매를 허용했다. 이날 판매 상점 앞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이른 새벽부터 대마초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워싱턴주도 올해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고, 뉴욕주도 기존의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미국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다. 대마초를 환각 성분을 가진 마약으로 여겨서다. 하지만 환자들의 '약'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센 반발은 없었다. 미 연방법은 대마초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0여 개 주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오락용 대마초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테비 과자 의 달콤한 쾌락은 젊은 중독자를 만들기 십상이다. 지난해 미국 고교 3학년생의 36%가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다는 통계는 이 같은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각 주정부 당국이 좀 더 신중한 자세로 대마초 양성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대마초 산업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내리다 '어둠의 자식'을 낳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법안 8557건 발의해 912건만 가결한 19대 국회

19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늘었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건 중 1건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557건으로 18대 국회 같은 기간의 6946건에 비해 23.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수는 912건으로, 전체 제출 법안의 10.65%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31일 93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며 간신히 10%대에 턱걸이 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의원들이 법안의 수준보다 양에 치중한 탓과 함께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법률안을 심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안 가결률은 18대 국회 때 같은 기간 13.15%(6946건 중 914건), 17대 국회 25.06%(3291건 중 825건), 16대 국회 40.45%(1105건 중 447건)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쟁점이 없는 법안은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다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뒷담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김석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준기자

말따레 첫 입영 장병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진행된 새해 첫 입영 행사에서 김태호 훈련병이 어머니,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9~10일 또 '북극한파' 온다

영하 9~10도 눈비 소식도

9일부터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전국에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8일 0도에서 9일 영하 9도로 뚝 떨어지고 10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서울 낮 기온은 영하 4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9~10일은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올 전망이다.

10일 밤에서 11일 오전 사이에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눈이 오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추위는 11일 누그러지며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5도 등으로 다소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윤다혜기자

축제 분위기 업 러시아 아이스 발레단이 6일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협력사 상생협력 혜택 주는 '공정거래협약' 대상 확대

가맹·통신 업종도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사업 및 통신 분야도 공정거래협약 대상 업종에 추가시켰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하도급·유통 분야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맹 분야는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에 공정위가 이행 실적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 상생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는 공정거래협약의 적용 범위를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가맹 분야까지 수평적으로 확대했다.

하도급 유통 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 등 기존 4개 분야에 통신 분야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 지원의 배점을 확대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평가 항목을 마련하는 등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또 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 평가 기준에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예방 노력이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해 대기업의 구매 형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이 밖에 협약의 실적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신설해 평가의 엄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영일기자 mns@metroseoul.co.kr

기부도 되는 건강계단 6일 서울시청 시민청 입구에 조성된 '기부하는 기아금 건강계단'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기아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시민 한 층당 10원씩 기부된다 /연합뉴스

상산고도 교학사 교과서 철회?

"우려와 질책 겸허히 수용 오늘 오후 최종 결정할 것"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해 철회 압박을 받고 있는 전주 상산고가 최종 결정을 예정된 6일에서 하루 미뤘다. 이는 재학생과 동문은 물론 여론의 거센 비난과 철회 압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상산고는 이날 '애정어린 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정과정에서 착박한 일정으로 인해 교과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학생, 학부모, 동창회, 시민사회의 애정 어린 우려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 한국사 교과서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7일 오전 11시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열고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종 결정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재학생들은 전날까지 철회와 채택 반대를 위한 서명을 진행했고 시민사회단체와 동문들도 이날부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전방위로 채택 철회 요구가 상산고에 가해지고 있다. /조현철기자

6일 열린 새누리당 신년 인사회에서 ... /뉴시스

6일 상산고 출신의 이도영 전주시의원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검찰은 자진출두한 철도노조 간부 16명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은 철도노조 간부 16명 중 서울본부 김모(47) 국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7일 결정된다.

검찰은 "철도파업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고, 사용자인 철도공사 경영진에게 결정권이 없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 목적 등이 불법"이라며 "그간 도피한 점, 일반 노조원의 업무복귀를 저지한 점 등에 비춰 수사와 재판절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검찰에 지휘했다. /윤다혜기자 ydh@

파이데이아 홍릉 겨울 강좌

경희사이버대의 시민대학 '파이데이아 홍릉' 겨울학기 강좌가 6일 개강했다.

문학, 예술, 고전 읽기, 현대 사상, 인문학 공부를 위한 예학 강좌 등 4개 분야로 다음달 28일까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진행된다.

덕성여대 신년교례회 열려

덕성여자대학교가 지난 2일 학생회관 2층에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홍승용 총장은 "대지를 박차고 내달리는 준마처럼 덕성 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는 우리 땅' 선언

1949년 1월 7일 이승만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전격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온 속지나 마찬가지였는데 350년 전 일본이 강점했으나, 일본이 무력강점한 뒤 일본 땅처럼 알고 이제 검사 방해는 ... 뒤 대마도 반환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일본을 더욱 압박했다

"오웅진 신부 조사 한번 않고…"

배임횡령 고발사건 검찰 불기소처분에 주민 반발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와 배임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충북 음성 주민들이 반발했다.

오 신부의 고발을 주도한 김모(50)씨는 6일 "검찰이 그동안 꽃동네 유탄회사 대표를 두 차례 불렀을 뿐 오 신부는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배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신부 등의 명의로 된 대규모 농지 매입 자금이 국가보조금 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도 자금 출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횡령 혐의도 불기소했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병철 '음성을 사랑하는 모임(음사모)' 대표는 지난 3월 오 신부를 배임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고발장에서 "오 신부는 영리법인 꽃동네 유탄회사에 현물 출자해 개인 지분 30%를 취득했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횡령 재산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충북 도민 1만1198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함께 제출했다.

김씨는 음사모와 연대해 전국적인 서명 활동은 물론 꽃동네 후원자들을 모집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인문기자 m.kmun@

기상오리들가 그린 풍경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의 동림저수지를 찾은 수만 마리의 가창오리떼가 6일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구청소식

금연클리닉 올해 연중 운영

서울시 강북구보건소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등록자의 니코틴 의존도 검사와 흡연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의 금연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산 산모 산후우울증 관리

조산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산모들을 위해 강서구청이 특별 관리에 나선다. 6일 강서구는 올해부터 서울시 최초로 조산 산모에게 자주 발생하는 산후우울증을 예방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출산 후 1년 이내의 이른둥이 출산 산모다.

전문가 초청 심폐소생 교육

서울시 노원구가 7일 오전 10시 노르웨이 및 서울대학교병원 심폐소생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 노르웨이 마이클버스트 옐게 박사와 펀치 브리킨즈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신상도 이익종 박상아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일상감사로 예산 대폭 절감

서울시 중랑구가 6일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상 감사는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집행 전 감사 부서에서 사전 심사하는 것으로 지난해 371건을 조사해 4억40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

"농사로 모은 피같은 돈"

'동양증권 사기 판매' 피해 입은 충남지역 농민 등 24명 8억9000만원 손배소 제기

동양증권의 사기 판매로 돈을 잃은 농촌지역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지역 농민 조모(74)씨 등 24명은 "동양의 금융 상품에 투자한 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동양증권 의 직원들은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설명이 전혀 없는 상품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적극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동양그룹은 사기 판매로 계열사 기업어음 보유액을 크게 늘렸고, 그 피해는 우리들 개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상품 가입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충남 논산 주민 21명을 비롯해 서산 보령·인천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2012~2013년 동양증권 지점 등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다.

벼농사를 지어 모은 돈으로 동양증권의 금융 상품을 구입한 조씨와 시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고 인삼직으로 일하며 모은 돈을 투자한 심모(49·여)씨 등 농민 주부 보험설계사 회사원이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별 측은 또 다른 지역의 농촌 피해자 손배소를 추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별 관계자는 "이번주 대전지역 동양사태 피해자 80여 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도 지역 등의 피해자 손해배상을 차례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다혜기자 yoh@metroseoul.co.kr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 6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서울 신촌 연세로에 시내버스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천주교 수사 실형 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허가 없이 공사 예정지에 출입한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모(51)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6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사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펜스 및 철조망 등이 쳐져있던 공사 예정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월에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월로 형량을 늘렸다. /윤다혜기자

metro HongKong

川靚女徵婚博宣傳

炒作 四川成都靚女黃莉娟任職房地產銷售經理，她斥資100萬元，在巴士站登徵婚廣告，廣告上寫「有房、有車、有存款、沒周末、沒假期、沒男朋友」。有網民懷疑她炒作博宣傳。

metro Sweden

Stoppades på buffén – åt f

"너무 많이 먹는다" 손님 쫓아낸 뷔페

스웨덴의 한 뷔페 레스토랑에서 많이 먹는 손님을 나무라며 내쫓는 사건이 일어났다. 스웨덴 외레브로의 한 식당 사장이 손님에게 "당신은 센스도 에티켓도 없느냐? 죽지풀처럼 먹고 있다"고 말하고는 네 번째 접시를 채우려는 손님을 가로막았다. 사장은 이 손님이 2kg에 육박하는 양의 음식을 먹어치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님은 "뷔페 식당이라면 당연히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metro Chile

Red de alerta para hogares. Más de 5.000 personas se inscribieron este fin de año

범죄 경보 울리면 이웃 주민이 출동

통칠 정부가 시행 중인 범죄 경보 시스템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집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직접 출동해서 상황을 살피는 경찰과 달리 이 시스템이 주목하는 대상은 '이웃'이다. 시스템에 가입할 때 최대 5명의 이웃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등록하면 비상시 이들에게 알람이 울리는 것.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다 트위터처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도 실시간 알람이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metro Brazil

Polícia frustra roubo de cofre de supermercado

주민들 잠깨운 떠들썩한 도둑 순식간에 검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슈퍼마켓을 습격한 어설픈 강도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4시40분쯤 슈퍼마켓의 문을 부수고 금고를 탈취하려던 그들의 범행은 소음에 깨어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10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철로 만들어진 문을 뚫기 위해 특수 장비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마켓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그들은 금고를 들고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슈퍼마켓을 나서는 순간 일당은 경찰과 마주쳤으며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세 대의 차량을 나눠 타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한 주택의 외벽을 들이받으며 검거됐다.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섯 명은 결국 도주에 성공했다. 도난당했던 금고는 다행히 경찰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여섯 명을 검거하려는 경찰의 수사도 그다지 난항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인들이 워낙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슈퍼마켓 주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모든 범행을 녹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검거된 네 명 중 두 명은 연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당국은 "사면을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현재 도주에 성공한 나머지 여섯 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검거된 네 명은 모두 상파울루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정리=손유진 인턴기자

'애마처녀' 2억 들여 구혼광고

"미남 아니라도 효심 많고 책 좋아하는 신랑감"…中 30세 여성 버스정류장 200곳 도배

새해 첫날 등장한 중국 여성의 이색 프러포즈 광고로 대륙이 떠들썩하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말에 올라 '신랑'을 찾는 모습을 연출한 포스터 광고. 과감한 '말 광고'를 선보인 화제의 주인공은 청두시에 사는 '열혈 미스' 황리쥐안(30)이다.

황리쥐안은 100만 위안(약 1억7500만원)을 들여 청두시 버스정류장 광고판 200곳에 자신의 반쪽을 찾고 싶다는 광고를 냈다. 광고판에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통장도 있다. 주말과 휴가, 남자친구는 없다. 부유하지만 가난하다. 2014년에는 행복해지고 싶다. 나의 이상형(Mr Right)을 찾는다"고 쓰여 있다.

그는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도 글을 남겨 공개 프러포즈 사실을 알렸다. 광고 카피와 함께 그는 자신을 보통 가정에서 자란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프러포즈를 한 사실을 부모님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황리쥐안은 "잘 울고 웃고, 가끔은 화도 낸다. 로맨틱한 것을 좋아하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한다. 사실 난 아주 단순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기 남자는 프러포즈에 대해 그는 "어떻게 광고를 통해 프러포즈하는 방식은 요란스럽지만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는 항상 단순할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사랑이 넘치는 결혼, 현모양처를 꿈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혼 중개업체나 데이트 사이트에서 남자친구를 찾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맘에 드는 상대를 찾지 못해서 광고를 통해 진심을 보이고 싶었다"며 "여자로서 용감하게 관심을 내보이고 싶었고, 용감한 남성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황리쥐안은 "특별히 잘생긴 사람을 찾지는 않는다. 마음이 넓고 진취적인 사람이면 좋겠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심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배우자 선택 기준을 밝히며 "책 보는 것을 좋아하면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6일)

코스피	코스닥
1953.28 (+7.14)	500.62 (+1.29)
금리 (국고3년)	**환율** (원/달러)
2.86 (-0.08)	1058.00 (+11.00)

뉴스 & 뉴스

한은 외환보유액 세계 7위

●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외환보유액이 3464억6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14억9000만 달러 늘었다고 6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환 보유고는 194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보유액 구성은 유가증권이 3210억6000만 달러, 예치금 145억9000만 달러, 예치금 145억9000만 달러, 금 47억90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34억9000만 달러 등이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 수준은 세계 7위를 기록 중이다. 중국이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일본, 스위스, 러시아, 대만, 브라질 등의 나라가 뒤따르고 있다.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 한국, 인도, 싱가포르는 외환 보유액이 늘고 대만은 변동이 없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줄었다.

증시 부진탓 손바뀜 줄어

● 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손바뀜'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회전율은 236.14%로 전년보다 106.21%포인트 떨어졌다. 코스닥 시장의 주식 회전율도 463.22%로 전년 대비 220.17%포인트 낮아졌다. 상장 주식 1주당 주식 회전수로 환산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지난 한 해 평균 2.3번, 코스닥 종목은 4.6번씩 주주가 바뀐 셈이다. /김현정기자

대기업 신용 4년반만에 최악

● 지난해 4분기에 대기업 신용 위험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4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16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2009년 2분기(16)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 신용 위험은 엔화 약세와 일부 대기업의 재무구조 취약 우려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상존해 올해 1분기에도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기자

투자할 곳 없어서…은행 예금 1000조 첫 돌파

은행 예금 1000조원 시대가 본격화됐다.

6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 은행의 평균 예금 잔액은 1001조4370억원으로, 사상 처음 평균 잔액 1000조원을 넘어섰다. 10월 말 잔액 기준 은행 예금도 지난해 7월(987조2241억원)을 저점으로 3개월째 늘면서 9월(1004조3374억원)과 10월(1009조3395억원) 등 2개월 연속 1000조원대를 유지했다.

이처럼 은행 예금이 증가한 것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일단 단기간 은행에 맡기는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은행 예금 중 10월 말 현재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저축성예금은 907조4275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정기예금(574조1966억원)은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2.1% 줄어든 상태다. 이에 비해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단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요구불예금(101조9120억원)은 13.4%나 늘었다. /김은지기자

은행들 새해 화두는 '리스크 관리'

산은, 리스크관리위원장에 사외이사 임명…신한·기업은행도 '고삐'

주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새해 화두로 꼽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산업은행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인 김태준 사외이사를 리스크관리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금융을 전공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다. 이에 대해 홍기택 산은 회장은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정책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건전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해외 점포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해외 현지법인들의 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리스크와 해외 현지 감독 당국의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중국, 일본 현지법인에 우선 구축됐다고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 각지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리스크를 서울 본점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 관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를 발판으로 베트남, 미국 등 주요 핵심 법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완성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업은행은 리스크 전문가가 행장이 된 사례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리스크관리 본부장(부행장) 출신이다. 금융위 측은 "리스크 관리를 통한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참조금융을 통한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ssm@metroseoul.co.kr

아우디 A3 세단 국내 출시 아우디 코리아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언론 기자 [illegible] D 주간 운행등, 하차량 운전자 지원 시스템, [illegible] 등 첨단 기술과 고급 사양이 추가됐다. /뉴시스

현대증권 조직개편…해외사업 확대

현대증권은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리서치 부문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유망 해외 사업과 상품 발굴 등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제업무팀을 국제기획부로 확대 재편했다.

또 중국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할 차이나마켓센터와 국내외 에쿼티(Equity) 파생 영업을 전담할 파생S&T부를 신설했다.

리테일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전략부, 상품지원부, PI부는 대표이사 직속 상품전략본부로 재편됐다. 새 본부는 전략 상품에 대한 리서치와 기획, 마케팅 업무를 유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리서치센터는 기존 부서 단위를 소팀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조직을 간소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김현일기자 hkim@

로봇기자·로봇의사 현실로

글로벌 이코노미

성큼 다가온 로봇시대 '인간의 전문직' 꿰차고 관련기업 주가도 급등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로봇 기자'가 스포츠 기사를 쓰고 정교한 '손'을 가진 로봇 의사가 외과 수술을 진행한다. 90kg 군장을 멘 로봇 병사가 시속 16km의 속도로 전쟁터를 누비고 '드론(무인비행기) 택배'는 잘 구운 피자를 30분 안에 공수한다.

로봇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바야흐로 로봇 공화국 시대가 열렸다. 우리의 일상을 깊숙하게 파고든 로봇은 편리한 삶의 '끝판왕'인가, 내 인생의 종결자 인가.

최근 옥스퍼드대학교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 내 미국 직업의 45%는 자동화로 사라질 전망이다. 1950년대 산업용으로 처음 등장한 로봇은 과거 공장창고 정리 등 단순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지능 제어기술, 부품 기술과 운동 메커니즘이 발달하면서 '똑똑한'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자랑하는 로봇은 기자와 의사 등 전문직 인간 노동자와 두뇌 싸움을 벌이며 그들의 생존까지 위협한다.

미국의 온라인 스포츠 콘텐츠 회사 스타트시트 소속 로봇 기자들은 매달 1만5000~2만 개의 기사를 쏟아낸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야구 경기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알고리즘으로 상황을 분석, 이미 제작된 문장 안에 그 결과를 삽입하면 야구 기사 하나가 몇 초 만에 완성된다.

수술 로봇으로 유명한 '다빈치'는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의 수술에 주로 이용된다. 국내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세계 최초로 다빈치 로봇 수술 1만 건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봇의 맹활약으로 관련 기업들도 눈부시게 성장했다. 다빈치를 개발한 미국 회사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주가는 상장 초기 주당 10달러에 거래됐지만 현재 거래가는 3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투자 전문가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로봇 기업들의 주가는 머지않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IT 공룡 기업의 주가처럼 폭발적으로 치솟을 것"이라면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공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금희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2 2100
독자센터 02)721-9835
2006년 1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36

미워도 다시 펀드라면 '미·일·유럽' 고고!

경기회복기 맞는 올해 재테크족이 관심 둘만한 지역 및 종목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재테크 신년 계획을 세우는 투자자들이 많다. 저금리 기조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상품이 바로 펀드다. 지난해 대거 펀드 환매 행렬에 동참하던 개인투자자들도 지난해 11~12월부터는 다시 주식형 펀드 등의 투자를 늘리는 모습이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 수혜를 받는 지역과 업종의 펀드 투자가 유리할 전망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소비재에 관심이 쏠렸다.

선진국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는 일본 펀드의 성과가 돋보인다.

6일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북미·유럽·일본 지역에 투자하는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 108개 가운데 최근 1개월 성과가 가장 높은 상품은 'KB자산운용의 'KB일본1.5배레버리지증권자투자신탁 H(주식-파생재간접형)C-F'였다. 이 상품은 이 기간에 11.27%의 수익률을 냈다.

2위는 프랭클린자산운용의 '프랭클린템플턴재팬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 A'로 6.59%였다.

북미펀드 중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나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상품이 성과가 좋았다.

'프랭클린템플턴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클래스 A'가 4.68%로 성과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피델리티자산운용의 '피델리티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와 '피델리티연금미국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C'가 각각 3.9%로 뒤따랐다.

유럽펀드 가운데 수익률 1위는 JP모간의 'JP모간유럽대표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A'가 4.25%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선진국 중심으로 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예상이 펀드 수익률로 확인된다. 신흥국 소비재 펀드의 수익률은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는 반면, 글로벌 소비재와 럭셔리 소비재에 투자하는 상품은 성과가 양호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A-e'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인덱스펀드인 '미래에셋타이거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과 삼성자산의 '삼성코덱스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등이 2~3%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럭셔리 소비재 중심으로 투자하는 '우리글로벌럭셔리증권투자신탁 1(주식)클래스 A1'과 'IBK럭셔리라이프스타일자A(주식)' 등은 1%대 성과를 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이 -1.03%, 해외주식펀드 -1.69%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양호한 수익률이다.

반면 신흥국 소비재 펀드는 약세를 보였다. 친디아(중국·인도), 신흥아시아 등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일제히 1~3% 안팎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크리스털 말과 함께 눈부신 한해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스와로브스키 부티크에서 모델들이 갑오년 청마해 모델의 크리스털 오브제 '이스페란자'와 '호스슈' 목걸이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계 기업 '작아진 취업문'

절반만 대졸신입 채용계획… 규모도 24% 감소

외국계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아투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지사 철수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는 최근 국내 거주 외국계 기업 52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외국계 기업 채용 동향'에 관해 일대일 전화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졸 신입직 공채(정규직 전환 인턴 채용 포함) 진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계 기업 2곳 중 1곳인 50%가 올해 대졸 신입직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곳은 19.2%였고, 나머지 30.8%는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고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곳이 51.9%로 가장 많았다. '채용한다'는 30.8%에 그쳤고, 미정이라고 답한 곳은 17.3%였다.

외국계 기업의 채용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정규직 전환 인턴 포함)을 고용하겠다고 밝힌 26개 기업이 채용하게 될 예상 인원은 462명이며, 고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60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채용 규모(대졸+고졸 신입사원)인 1421명보다 24.6%나 감소한 수치다.

/이국비기자 [illegible]

자영업자 빚 9% 늘고 소득 10% 줄어

한달 100만원도 못버는 빈곤층이 전체의 절반

자영업자의 빚은 지난해 1년간 9% 증가한 반면 소득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 정도로 빈곤에 빠져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3000억원(8.5%) 증가했다. 일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은 2~4%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출을 늘릴 곳이 마땅치 않은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을 수익성 측면의 돌파구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이 지난해 3월 말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1인당 대출(4000만원)의 3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의 빚은 쌓이고 있지만 소득은 뒷걸음질 쳤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이 전국의 자영업자 1만49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지난해 월 매출은 평균 877만원으로, 2010년보다 113만원(11.4%) 감소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에 2012년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395만7000명 가운데 221만6000명(56.0%)의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줄고 빚은 증가하면서 원리금 상환 여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가 56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준 것으로 집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자영업자 대출 규모

기업 1억1000만원 / 자영업자 1억1,700만원 / 가계 / 비자영업자

위험부채 규모: 생계형 부채 74.2조원 (자영업자 59.7조원) / 고위험부채 15.5조원 (자영업자 13.5조원, 비자영업자 2조원)

자료: 한국은행 / 연합뉴스

네이버 분당 사옥 옆 SW진흥시설 세운다

네이버 본사가 있는 성남 분당 정자동 일대에 2018년까지 다수의 벤처기업이 들어선다. 인근 판교 IT 벤처 밸리와 유대할 경우 '한국판 실리콘밸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게 됐다.

성남시는 네이버와 지난해 12월 30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립 조건으로 1만848㎡의 정자동 공공청사 잔여 시유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매각 대금은 3.3㎡당 3764만원으로 총 1235억1000만원이다. 정자동 공공청사 잔여 시유지를 사들인 네이버는 5400억원을 들여 연면적 15만6000㎡, 지상 28층 규모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건립한다.

이 시설에는 네이버 본사와 벤처기업 약 360개사 이상이 입주하며 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박성훈기자

직장인 스펙 유지비 월 평균 20만원 지출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스펙 갱신을 위해 월평균 2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직장인 46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스펙 갱신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월평균 20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5만~10만원 미만' '10만~20만원 미만' '5만원 미만' 순이었다.

'취업 후에도 스펙을 쌓는다'는 응답자의 기업 규모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부장급 이상' '과장급' '대리급' 등 직급과 정비례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첨단 도깨비 방망이’ 전투기 부품도 뚝딱

세상을 바꾸는 3D프린터 - 상용화 제품 속속 출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3D프린터가 상용화에 근접하고 있다.

3D프린터는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가루나 금속 성분, 고분자 복합 소재 등을 이용해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기기다.

지난해 미국에서 3D프린터로 플라스틱 총을 만들어 실제 발사에 성공한 일이 화제가 된 이후 새로운 물건들이 속속 '21세기 도깨비방망이'에서 태어나고 있다.

급기야 첨단 산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전투기까지 3D프린터로 제작에 성공했다. 영국 항공방위산업체 BAE시스템스는 6일(한국시간) 토네이도 전투기가 지난달 3D프린터로 만든 금속 부품을 장착하고 시험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시험 비행에 성공한 토네이도 전투기에는 3D프린터로 제작한 조종석 무선통신장치 보호 덮개, 착륙장치 보호대, 공기 흡입구 지지대가 설치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번 비행 성공으로 영국은 수십만 파운드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원하는 음식을 가정에서 찍어내는 일도 현실이 됐다. 지난해 12월 스페인의 '내추럴 푸드'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3D프린터 '푸디니'를 공개했다.

신도리코 3D프린터 '큐브X'

3D프린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대신 신선한 음식 재료로 만들어진 5개의 캡슐을 장착한 뒤 기기를 작동하면 음식이 프린트 되는 방식이다.

햄버거, 피자와 같은 대중적인 음식도 바로 찍을 수 있으며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암 치료에 쓰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실제 수술에 성공했다.

순천향대병원은 최근 3D프린터로 만든 내시경 수술 기구를 이용해 종양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병원의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팀은 3D프린터로 내시경 캡을 만들어 이를 57세 여성 환자의 위점막하종양 제거 수술에 사용했다.

내시경 캡은 내시경 끝에 끼워 시야를 확보해 시술을 돕는 도구다. 환자의 병변이나 그 위치에 따라 크기와 모양을 다르게 해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까지는 단일 모델의 내시경 캡만을 사용했다.

만들고 싶은 물건에 어느 정도 제한은 있지만 이미 3D프린터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는 지난 3일부터 보급형 3D프린터를 특가 판매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오브젝트빌드의 '헬리봇M5'와 3D프린터마켓의 'EIFELL NOMI70'으로 가격은 각각 185만, 168만9000원이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삼성전자 상여금 지난해 3조 돌파

삼성전자가 지난해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3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3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에는 상여충당부채 순전입액은 2조4649억4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각각 7565억6700만원, 7985억7100만원이었고, 3분기에는 9098억300만원을 상여충당부채 순전입액으로 계상했다. 삼성전자는 회계연도 경영 실적에 따라 임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하고, 연말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산해 각 분기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다.

4분기의 경우 정확한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2013년 한 해 지급한 상여금은 3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에는 신경영 선포 20주년을 맞아 특별 격려금이 지급돼 실제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년에 두 번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생산성 격려금(PI)을 지급하고, 연간 실적에 따라 초과 이익의 20%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초과이익분배금(PS)을 준다.

/김태균기자 kaye@

곡면의 빔 뽐내는 삼성 '커브드 UHD TV' 오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4'의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모델들이 세계 최초 105형 커브드 UHD TV를 비롯한 다양한 라인업의 커브드 UHD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연초부터 머리싸맨 유료방송 ‘3대 숙제’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UHD 방송시점·점유율 합산규제 해결 난관

갑오년 새해에도 유료방송 업계에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초고화질(UHD) 방송 시점 갈등,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 등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방송 업계와 관련한 각종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올해에도 시장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KT와 케이블 업계, 일부 IPTV 업체를 포함한 비KT 간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 문제다. KT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일하게 IPTV 서비스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함께 하는 사업자다. IPTV는 특별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약 2400만 명)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위성방송은 방송법과 IPTV법 등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KT가 새롭게 내놓은 IPTV와 위성방송을 합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다. KT는 OTS는 위성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라며 점유율 규제받지 않으려 하고 비KT 진영은 KT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하에 OTS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은 또다시 올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공산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의 재송신료 협상도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은 유료방송 업계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데 대해 지불하는 대가로 유료방송 가입자당 요금을 뜻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그동안 유료방송사에 280원의 재송신료를 받아왔다.

최근 지상파는 재송신료를 또다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시 한번 유료방송 업계에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UHD 방송 시점을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지상파는 올해부터 UHD 방송 준비에 착수, 2015년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케이블 방송의 UHD 상용화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지상파 사업자들이 UHD 방송 시점을 두고 케이블의 발목을 잡고 있어 향후 어떤 어떻게 계획할지 눈길을 끌고 있다. /디지털기자 @

소셜커머스 "1조2000억 시장"

스마트 기기라는 날개를 단 소셜커머스가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1년 만에 거래액이 50% 이상 늘어나는 등 스마트폰 이용자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거래액은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한 1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티몬 역시 지난해 누적 거래액이 전년(7284억원) 대비 약 65% 늘면서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3위 위메이크프라이스도 지난해 거래액 1조원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2012년 12월 351만 명 수준이던 모바일 웹과 앱 순방문자가 지난해(10월 기준) 594만 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 비중도 이미 지난해 9월 50%를 돌파했다.

티몬 역시 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 채널 거래액 비중이 2012년 24%에서 지난해에는 47%까지 증가했다. 11월부터는 모바일 비중이 더 커져 57.2%를 대크했다. /박상훈기자

"매도·매수자 눈치 싸움"

규제 완화에 들썩이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 가보니

매매가 3개월만에 반등 · 저가 매물 싹 사라져

"아직 연초라 매도자·매수자 모두 전화로 이것저것 묻는 수준이고 실제 거래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보니 거래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대기자들과의 눈치 싸움이 자연한 상황입니다."(강남구 개포동 K부동산 대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책이 대부분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대표적인 투자자 중심 시장인 강남 재건축의 회복 전망이 잇따르는 추세다.

6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새해 첫 주말 강남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저가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지난달 말 양도세 5년간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상당수 거래된 데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집주인들로 인해 추가로 출시되는 매물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써브가 지난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3개월 만에 반등해 0.21% 상승했다. 또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 리버파크'는 30억원이 넘는 비싼 분양가에도 평균 1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포동 H공인 관계자는 "최근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며 강남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라며 "지난 주말 매수 문의가 늘자 가격을 올리거나 물건을 회수한 매도자가 여럿 된다"고 말했다.

특히 속도가 빠르거나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단지 위주로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12월 19일 조합 설립 승인을 받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거래가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관리처분 인가를 진행할 가락동 가락시영1·2차와 연말 이주를 앞둔 반포동 한양아파트 등에서도 급매물 회수와 함께 매도 호가가 1000만~2000만원씩 올랐다. 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앞둔 개포동 개포2·3단지도 3000만원 넘게 호가가 상승했다.

단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며 기대에 부푼 것과 달리 매수세는 주춤한 모습이다. 개포동 K부동산 대표는 "저가 매물 소진 후 급할 것 없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 물건을 내놓고 있지만 대기자들 입장에서 덜컥 사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근옥 부동산클리닉 팀장은 "실거주 목적의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투자 성격이 짙은 재건축은 가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수요자들은 가격 오름세가 본격화되기 직전 최적의 거래 타이밍을 잡기 위해 당분간 눈치 싸움을 벌이면서 시장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e1930@metroseoul.co.kr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들 기관에 정상화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설명회 9일

국토교통부는 신시장 개척 및 건설업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사회간접자본)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9일 오전 10시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도시, 교통, 수자원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개발도상국에 수립해주고 후속 수익사업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 ▲나이지리아 광역 교통 ▲미얀마 수자원 개발 ▲인도 도시 재생 등 마스터플랜 3건을 수립 중이다. 올해 11월까지 완료해 해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증가한 50억원의 예산을 책정, 대상 사업 발굴 후 유관기관 및 재외공관 등의 의견 수렴과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위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도 진행한다. 해외 건설 진출이 유망한 국가의 인프라 분야 정책 결정권자를 초청해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이고 우리 기업과 인적 네트워크를 맺도록 도와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건설 수주가 국가 대항전 성격을 보이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초청 연수와 같은 정부 지원의 개발 협력을 통한 수주 연계로 지원 방향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전셋값이 게시돼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2645만원 상승해 2억9314만원에 달한 가운데 송파구의 오름폭이 약 6700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서울 전셋값 상승률 1위는 송파구

1년새 6700만원 올라 · 평균 4억원 돌파

지난 1년간 송파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약 6700만원 오르며 4억원을 돌파했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억9314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2년 12월보다 2645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특히 송파구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총 6600가구의 가락시영 이주 여파로 평균 전세금이 3억4672만원에서 4억1371만원으로 1년 사이 6699만원 올랐다.

이어 ▲강동구 3951만원(2억6833만→3억784만원) ▲영등포구 3859만원(2억7493만→3억1352만원) ▲강남구 3808만원(4억2252만→4억6060만원) ▲중구 3636만원(2억9780만→3억3416만원) ▲광진구 3400만원(3억3595만→3억6995만원) ▲용산구 3379만원(3억5269만→3억8648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또 작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730만원 올라 2억633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1301만원 상승한 1억6789만원에 평균 전세가가 형성됐다. 과천시가 2억6858만원에서 3억2415만원으로 5557만원이나 뛰었다.

인천 평균 전세가는 1억1561만원에서 1114만원 오른 1억2675만원으로 파악됐다. 연수구가 1472만원(1억3418만→1억4890만원)으로 오름폭 1위를 기록했다. /박선옥기자

올 힐스테이트 8600가구 공급

올해 전국적으로 8600여 가구의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공급된다.

현대건설은 2014년 서울, 경기, 세종시, 경남 등지에서 아파트 총 8638가구를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분양 실적 3060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원분이 2536가구이고, 나머지 6102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택지 유형별로는 민간 택지가 7786가구, 공공 택지가 852가구 규모다.

첫 분양은 오는 3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정4구역을 재개발한 '목동 힐스테이트'로 43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또 같은 달 충남 당진에서는 '송악 힐스테이트' 915가구가 선보인다. /박선옥기자

수도권 2만가구 늘었고 지방은 1만가구 줄었다

지난해 분양실적

2013년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전년 대비 2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1만 가구 가까이 감소했다.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396개 단지 22만9195가구가 일반 분양됐다. 2012년 422개 단지에서 21만850가구가 선보인 것과 비교해 1만8345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년 6만292가구보다 무려 2만7699가구나 늘어난 8만7991가구가 공급됐다. 경기도 6만676가구, 서울 1만8566가구, 인천 8949가구 순이다.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진 경기도에서는 동탄2·위례 등 신도시 물량을 비롯해 하남미사·성남여수·시흥목감·수원호매실·부천옥길 등 보금자리 공급이 많았다.

서울은 위례신도시, 마곡·세곡2·내곡·신내3·천왕2지구 등 신도시·택지지구를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골고루 분양이 이뤄졌다.

지방은 2012년 15만558가구에서 2013년 9554가구 줄어든 14만1004가구가 공급됐다. 충남이 2만1206가구로 공급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1만5849가구, 경북 1만6903가구, 세종 1만3297가구, 경남 1만2336가구로 뒤를 이었다.

한편 월별 공급량을 살펴보면 10월이 4만9857가구로 가장 많았다. 9월 추석 영향으로 10월에 분양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이었던 1~2월은 계절적 비수기 탓에 각각 2870가구, 3344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박선옥기자

좀 놀던 아이, 파티의 황제로 진화한 격

쫄깃IT리뷰 애플 '아이패드에어'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A7·M7칩 속도·그래픽 처리 능력 2배로 사진·동영상 편집기능 놀라워 연주앱 '가라지'로 32중주도 무게 478g·두께 7.5㎜로 개선

친구·지인들과 찍은 사진·동영상을 바로 편집해 선물하고 즉석 밴드를 만들어 함께 연주하고…

여기에 클럽 DJ처럼 신나는 음악을 믹싱해 파티 분위기를 띄우는 것까지 IT기기 하나로 척척 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애플이 새로 내놓은 태블릿 PC 아이패드에어는 기존 PC나 노트북으로는 힘든 이같은 일들을 가능케 만드는 '요물'이다. 아이패드에어를 지난 연말 각종 모임이나 파티에서 체험해본 결과, 사용자를 순식간에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도구' 역할도 했다.

이 같은 일은 아이패드에어가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64비트 기반의 A7 칩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M7 칩을 탑재한 덕분이다. 전 세대 아이패드보다 속도와 그래픽 처리 능력이 각각 2배 좋아졌다.

이에 따라 애플이 무료로 제공하는 아이포토(사진 편집), 아이무비(영상 편집) 등을 활용하면 수백 건의 사진·동영상을 보다 빠르게 편집할 수 있다.

특히 사진을 편집해 원하는 사람들과 바로 공유할 수 있고 두 개의 동영상을 합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더욱 놀라운 일은 만들어진 영상물을 대형 TV에 연결해도 화질 저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아이패드에어를 이용하면 파티 등에서 음악 전문가를 흉내 내는 것도 가능하다.

연주 앱인 '가라지밴드'를 터치하면 무려 32종류의 악기를 한꺼번에 연주하는 것과 같은 32트랙 효과를 맛볼 수 있다. 기존 8트랙에 비해 4배나 늘어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도 충분할 정도다.

◆ 전문 DJ처럼 믹싱놀이 즐거움도

'디제이' 앱을 활용하면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전문 기기가 없어도 전문 DJ처럼 음악을 믹싱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음정까지 자동으로 맞춰져 '믹싱 놀이'에 재미를 더한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런 뛰어난 성능을 지녔는데도 무게와 두께가 오히려 전 세대 아이패드보다 28%, 20%나 가벼워진 점이다. 9.7인치 화면을 탑재한 아이패드에어는 무게가 478g(와이파이+셀룰러 버전 기준)에 불과하다. 두께도 연필 뒤에 숨길 수 있을 정도인 7.5㎜다. 이런데도 한 번 충전으로 10시간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웬만한 데스크톱 PC나 노트북보다 비싼 가격이다. 가장 저렴한 와이파이 모델(16GB)도 62만원이며 셀룰러 모델(128GB)은 112만원에 달한다. 사무용을 넘어 파티용으로도 활용 가능하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끼' 부리는 폰 케이스

레고브릭 모양·시스루 방식·스피커 탑재 등 개성

스마트폰 케이스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기존 용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색다른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린아이처럼 장난감을 수집하는 키덜트 족 이라면 한국벨킨이 장난감업체 레고와 손잡고 내놓은 벨킨 레고 빌더 케이스가 유용하다.

아이폰·아이패드용으로 출시된 이 케이스는 레고 브릭으로 직접 조립하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구성 높은 소재를 사용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3단 스탠드 형태로 접어 영화·드라마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다.

독특한 것을 꺼리는 여성들을 위한 케이스도 있다.

애니모드의 '미연 폴리오커버'는 시스루 방식의 전면 커버를 채용해 커버를 열지 않고도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는 케이스를 거울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케이스가 내놓은 '레더 모드 케이스'는 요즘같은 추운 겨울에 딱이다. 가죽 소재를 손으로 쥐고만 있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며 후면에 3개의 소프트 폼을 삽입해 그립감도 뛰어나다.

젠택이 지난해말 선보인 '사운드 케이스'도 음악 마니아에게 인기다. '케이 시크릿 엠'용인 이 케이스는 스피커가 탑재된 케이스 형태로 스마트폰에 장착하기만 하면 바로 생생한 음질을 구현해준다. /차재서기자

올레클럽 '수요일, 카페거리 가면 50% 할인' KT는 새해를 맞아 자사 멤버십 서비스인 올레클럽 고객을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5개 카페거리(가로수길, 홍대, 삼청동, 북촌동, 죽전)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올레클럽 카페거리, 5000원으로 대표로 21개 한국 관광 및 오설록의 ... 를 제공하는 '올레스타5000'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KT 제공

게임빌·컴투스 '크로스 프로모션' 8일까지 진행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 기업 두 곳이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게임빌과 컴투스는 6일 이같이 밝히고 8일까지 게임빌은 '제노니아 온라인'으로, 컴투스는 '돌아온 액션퍼즐패밀리'로 크로스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돌아온 액션퍼즐패밀리의 유저들이 게임 내 배너를 통해 제노니아 온라인에 신규 가입하면 아이템 구매가 가능한 '보석' 10개를 즉시 제공하며, 추가로 제노니아 온라인의 5 레벨을 달성하는 유저들에게는 'VIP 별가루' 1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노니아 온라인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돌아온 액션퍼즐패밀리 이벤트를 진행,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다. 무엇보다 두 게임은 출시 초반부터 인기를 얻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제노니아 온라인과 돌아온 액션퍼즐패밀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무료 게임 및 매출 순위에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하희철기자

뚜껑만 열면 먹는 도시락, 인기 뜨겁네

싱글족 증가 더불어 매출 급증세…점심 넘어 저녁밥 시장 달구는 중

지난해 통계청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3.5%인 509만7000가구가 맞벌이 가구라고 밝혔다.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는 것이다.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요리를 전업으로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집 안에서 요리를 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자연스럽게 즉석식품과 가정간편식 시장이 성장한 가운데 얼핏 '도시락 쇼핑족'이 등장했다.

도시락은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선식품 조리에 비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식 도시락 브랜드 본도시락이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이용 실태 조사에서는 야식용 포함한 저녁 식사용으로 도시락을 구입한 사람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등 저녁 도시락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전국 2만여 개의 유통망을 가진 편의점에서 저렴한 가격의 도시락 판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도 도시락 쇼핑족을 증가시키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도시락 매출이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89.1%, 2010년 113.5%, 2011년 105.6%로 매출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도시락은 도시락 전문점 제품에 비해 반찬의 양이나 종류가 적지만, 음료나 반조리 식품 등 함께 먹을 수 있는 제품들로 인기몰이 중이다. 편의점들은 삼각김밥, 빵, 컵라면 등의 인기가 도시락으로 확대되면서 도시락 반찬의 종류를 늘리고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한 설비에 투자하는 등 제품 개발에 적극적이다.

/김현정기자 jmall@metroseoul.co.kr

빨간 자몽 노란 자몽…뭐부터 먹을까 최근 다양한 종류의 자몽이 출시돼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6일 롯데마트 서울 역점에서 모델들이 이스라엘 자몽을 소개하고 있다(왼쪽). 롯데마트는 10여 개 수도권 점포에서 이스라엘 자몽을 개당 1500원에 판매한다. 이날 이마트 용산점에서 홍보도우미들이 자몽에 오렌지를 교배해 단맛이 강한 '가락 메로 골드 자몽'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과일 '매출 1위' 감귤? 딸기 이어 수박에 또 뺏겨

지난해 국내 대형마트에서 수박이 감귤을 누르고 국산 과일 매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감귤은 지난해 딸기에 겨울 대표 과일의 자리를 내준 이후 연거푸 2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말았다.

6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집계 이후 지난 15년간 과일 매출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수박이 감귤을 누르고 국산 과일 왕좌 자리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은 2001년 사과를 제치고 국산 과일 매출 1위에 올라선 이후 2012년까지 12년간 단 한 번도 국산 과일 왕좌 타이틀을 내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3~4월부터 시작된 이른 더위로 수박 신지인 전북 고창과 완주 등에서 본격 물량이 전년보다 2~3주 정도 앞당겨진 4월 초부터 출하됐다.

수박의 경우 일반적으로 6~7월에 전체 과일 중 매출 1위를 차지하며, 보통 8월 말복 이후에는 자연 수요가 줄어든다. 하지만, 지난여름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말복 이후 9월 중순까지도 수박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롯데마트에서 지난해 말복 이후인 8월 13~24일까지 수박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5.7%나 늘었으며, 연간 8월 과일 매출 순위에서도 포도, 복숭아를 제치고 정시 이래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귤의 경우 제주지역에 일찍 찾아온 더위와 여름철 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하며 가격이 상승하고 저장성도 떨어져, 지난해 12월 과일 순위에서 처음으로 딸기에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했다.

/장병철기자

이마트, 신학기 참고서 반값 할인 판매

이마트가 오는 2월 말까지 신학기 참고서 사전 기획과 전량 매입이라는 유통 혁신 실험을 통해 반값 수준으로 초등학생용 참고서를 할인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첫 번째 시도로 학습서적 전문 출판사인 기탄교육과 사전 기획을 통해 하나로 수학참고서 세트 3종을 묶어 정가 2만3500원보다 42% 인하한 9900원에 판매한다. 판매 참고서는 기탄초등 수학의 생명(뿌리)과 수학의 생명(줄기), 기탄 문제은행(수학) 등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이마트는 기탄교육과 6개월 전부터 사전 협의해왔으며 6만 권을 세트로 기획하고 이를 전량 이마트가 매입하는 형태로 가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나도 알코올중독? 자가진단 앱 떴다

대한보건협회 파랑새포럼 개발·무료 공개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보건복지부와 파랑새포럼(사무국 대한보건협회)은 생활 속 스마트폰 의존도가 점차 커지는 현실에 맞춰 '알코올 사용 장애 진별 검사(AUDIT-K)' 앱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앱은 사용자가 10개의 간단한 질문(술을 마시는 빈도, 한 번에 술을 마시는 양, 자신의 음주 절제력 등)에 응답한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3가지 단계로 사용자의 상태를 구분한 후 사용자의 음주 습관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알려준다.

파랑새포럼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앱은 음주와 관련한 실시간 음주단속 정보, 음주 측정기, 복불복 술게임 등의 앱과는 달리 음주 습관을 개선하는 유용한 앱"이라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음주 문제'라고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앱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파랑새포럼은 보건복지부 '파랑새플랜 2010'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정부, 시민단체, 알코올 문제 전문가, 치료 상담 단체 등 20개 단체가 참여해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대한보건협회 02)766-9520

/황재용기자

'스토리 담은' 코카콜라 출시

코카콜라는 6일 가족과 친구, 연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패키지 '셰어 어 코크' 제품 2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라벨에 '닉네임' 또는 '메시지'가 표시된 제품이다.

22종의 라벨 메시지는 "우리가족", "자기야", "친구야" 등의 닉네임과 '잘될거야', '사랑해', '최고야' 등 메시지로 구성돼 있다. 이 메시지들은 지난해 11월 코카콜라와 오픈서베이가 10~3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너의 마음은 보여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회사 측은 닉네임과 메시지 구성은 매달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립톤 '다과상의 짝꿍' 이벤트

유니레버코리아의 차 전문 브랜드 립톤(LIPTON)이 새해 첫 이벤트로 '립톤티와 함께하는 새해 다과상, 환상의 짝꿍을 찾아라!'를 6일부터 10일까지 공식 페이스북에서 실시한다.

'립톤티와 함께하는 새해 다과상, 환상의 짝꿍을 찾아라!' 이벤트는 립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방법은 새해를 맞아 방문하는 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접하는 다과상에 달콤한 찹쌀떡, 부드러운 바움쿠헨 등 립톤과 함께 어울리는 티푸드를 댓글로 추천하면 된다.

눈썹만 잘 그려도 "동안미인이시네요"

올해 눈썹 메이크업 트렌드 앞머리 강조·꼬리 짧고 굵게 내 얼굴형에 맞는 연출요령

눈썹은 '얼굴의 지붕'이라 불릴 만큼 인상을 좌우한다. 베네피트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은정 과장은 "눈썹은 유행에 민감해 한 끗 차로 얼굴의 세련미는 물론 동안과 노안을 구분 짓는다"며 "자신의 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눈썹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질 전 눈썹 트렌드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는 눈썹 앞머리를 살짝 더 강조하면서 꼬리는 약간 짧고 굵게 그려주는 '볼드 브라우'가 인기를 끌 전망이다. '짱구 눈썹'처럼 진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통통한 볼륨을 살린 눈썹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준다.

다음은 얼굴형에 어울리는 눈썹 스타일.

◆둥근 얼굴엔 '각진 눈썹'

둥근형의 얼굴은 귀엽고 온화한 인상을 주지만 세련된 면은 부족하다. 또한 흐릿한 인상으로 자칫 얼굴이 커 보일 수 있는데, 이때 눈썹산을 강조해 입체감을 주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각진 눈썹을 그릴 때는 헤어 색상에 맞는 아이브로를 이용해 눈썹산과 눈썹 꼬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눈썹 꼬리의 위치가 눈썹 앞머리보다 높으면 샤프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눈썹 끝을 너무 길게 그리면 사납거나 촌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긴 얼굴엔 '일자 눈썹'

긴 얼굴의 경우 나이 들어 보이기 쉽다. 긴 얼굴에는 일자형 눈썹이 잘 어울린다. 대신 자로 그은 듯 반듯한 일자보다는 자연스럽게 끝 쪽을 살짝 뺀 듯한 일자형 눈썹이 긴 얼굴을 완화해 어리면서도 활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직선형 눈썹은 눈썹결을 살려 선명하게 잡아주되 눈썹의 앞머리는 섀도로 옅게 채워주고 나머지 눈썹은 한 올 한 올 심듯이 그린다.

◆각진 얼굴엔 '아치형 눈썹'

사각형 또는 역삼각형의 각진 얼굴은 인상이 강하고 날카로워 보일 수 있는 반면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자랑한다. 다만 얼굴이 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둥근 아치형 눈썹으로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 펜슬로 힘을 줘 진하게 그리기보다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의 섀도를 사용해 빈 부분만 메운다. 이때 눈썹산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주의한다.

/이지원기자 sjur@metroseoul.co.kr

수애 아니 벌써 '봄의 여신'

배우 수애가 화사한 '봄의 여신'으로 변신했다. 올리비아로렌은 6일 수애와 함께한 봄 시즌 화보 촬영 현장 컷을 공개했다. 싱글likh 원피스도 우아한 수애의 모습을 담은 올리비아로렌의 2014년 봄 화보는 다음달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올리비아로렌 제공

집에서도 '관리 받은 손톱'처럼 되네

셀프 네일 케어 제품 다양

장기 불황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분전환 효과를 톡톡히 낼 수 있는 네일 제품이 인기다.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뷰티 업계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네일'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아리따움은 다이아몬드 같은 광택과 젤 특유의 도톰한 질감이 돋보이는 '모디 젤 네일'을 내놨다.

이 제품은 젤 LED 램프, 젤퍼 오프패치, 베이스젤, 탑젤, 젤 클렌저, 젤 리무버 등 총 6종의 네일 도구와 14가지 컬러젤로 구성해 집에서도 네일 케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리따움 관계자는 "다양한 질감의 글리터나 파츠를 얹어 보다 입체적인 디자인도 완성할 수 있다"며 "특히 사슬 후 빠르게 말라 금힘 없이 2주 이상 지속된다"고 말했다.

바닐드는 정원의 꽃과 자연을 색으로 표현한 '네일 가든 컬렉션'을 출시했다.

고광택의 '컬러 라인', 고급스러운 '안개 펄 라인' 등 총 60종으로 발색력이 뛰어나 탑코트 없이도 생생한 컬러가 표현된다. 뭉침 및 결 남김 없이 부드럽게 발리는 고급 브러시를 적용해 초보자들도 쉽게 셀프 네일 컬러링을 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지원기자

소망의 얼굴 박하선

알로에 바른 최정원

최근 화장품 업계에 새 얼굴 기용 바람이 거세다. 업계 관계자는 "뷰티 브랜드는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 매출이 좌지우지될 만큼 모델의 영향이 큰 업종"이라며 "새해를 맞아 브랜드 분위기를 쇄신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모델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망화장품은 배우 박하선을 광고모델로 발탁했다고 6일 밝혔다. 소망화장품 측은 박하선이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남녀노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델로 낙점했다고 말했다. 박하선은 최강희, 진세연 등 기존 모델들과 함께 다나한, 'RGII', '꽃을 든남자' 등을 선전할 예정이다.

김정문알로에는 배우 최정원을 찜했다. 최정원은 특유의 순수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 측은 중화권에서 인기가 많은 최정원을 내세워 중국 진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원기자

골프의류 '와이드 앵글' 론칭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는 올해 가을·겨울 시즌에 맞춰 골프 의류 브랜드 와이드 앵글(W Angle)을 론칭하며 골프 의류 사업에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와이드 앵글은 K2코리아의 기술력에 북유럽 스타일을 접목했으며, 기존 고가 브랜드와 차별화해 거품을 뺀 합리성 있는 가격대의 브랜드를 표방한다.

K2코리아는 지난해 6월 골프사업부를 신설해 12월 브랜드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올 9월부터 제품 출시를 목표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와이드 앵글은 골프 의류와 모자, 장갑 등 소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지원기자

한파에도 스니커즈…안 추워? 멋있잖아!

한정판 제품들 시선집중

혹독한 추위 속 방한 부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정판 스니커즈'가 패셔니스타들을 유혹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제품부터 브랜드 론칭 100주년을 기념한 신발까지 리미티드 에디션이 속속 출시돼 눈길을 끈다.

신발 브랜드 컨버스는 새해를 맞아 미국 시트콤이자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심슨'과의 콜라보레이션 스니커즈 '컨버스 척 테일러 올스타 심슨 컬렉션'을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컨버스는 자사의 아이코닉 스니커즈인 '척 테일러'에 '심슨네 가족'을 위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호머 마지·바트·리사·매기를 흥미로운 모습으로 담았다.

수페르가의 '2750 Aerex Century'는 브랜드 론칭 100주년을 기념해 클래식 스니커즈의 오리지널 모델을 새롭게 해석한 제품이다. 발등의 가죽 갑피에 장식용 때든 고리를 추가해 안정감을 더했으며, 아일릿과 신발끈 마감에 금색 장식으로 포인트를 줘 브랜드 특유의 멋을 살렸다. 남녀 공용으로 화이트·블랙·네이비 컬러가 있다. /이지원기자

코믹 연애극;
작업의
연극
정석
2013년 9월 5일 OPEN 코엑스아트홀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문의| 1588-5212
토요일 심야
전석1만원!
(20시 공연)
이제, 강남 코엑스에서
진정한 선수들의 밀당승부가 시작된다!

리뉴얼 호텔들, 5성 그 이상의 진화

VIP병실처럼…캠핑장처럼…차별화된 서비스 내세워 고객 유치 경쟁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에 신축되는 호텔은 총 58곳, 추가 계획 중인 곳은 30여 곳 이상이었다. 또 신라·롯데 등 특급호텔들도 잇따라 대규모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호텔 업계는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평범화된 서비스보다 각 호텔만의 콘셉트를 잡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펜타즈호텔, 특화된 의료 서비스

먼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더 클래식 500 펜타즈호텔이 눈길을 끈다. 건대병원과 연계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로 시니어들과 해외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 시설 자체가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주요 생활 동선에 위치한 '응급콜', 인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시 의료진이 즉각 출동하는 '24시간 인체감지시스템',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는 '라이프케어 센터' 등이 그것이다. 또 펜타즈호텔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반경 500m 내에 있는 건대병원으로 5분 내에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색 콘셉트룸, 체크인의 즐거움

자신만의 콘셉트로 승부하는 호텔들도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에 오픈한 호텔 더 디자이너스는 이색적인 콘셉트룸으로 손님을 모으고 있다. 호텔 더 디자이너스는 태극기, 나비 등 한국적인 요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객실부터 사랑하는 이와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할 수 있는 '쿠킹룸', 아웃도어 캠핑의 감성을 호텔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캠핑룸'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 한남대교 남단에 위치한 라까사는 종합 인테리어 가구업체인 까사미아가 론칭한 호텔로 일반 호텔과는 다른 디자인 호텔 콘셉트를 선보였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호텔 스카이파크 센트럴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명동에서 화장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에 착안해 여성 관광객을 위한 '레이디스 플로어'를 지정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펜타즈호텔의 의료서비스 장면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강강술래 실속 설선물세트 예약 급증

온·오프라인 최대 43%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지난 한 주간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 정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 미만의 곰탕·육포·떡갈비 등 중저가 세트와 한우불고기와 양념갈비 등 매장 인기 메뉴, 제수용으로 꼭 필요한 부위만 담은 실속 세트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강강술래는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 매장을 통해 설 선물세트를 최대 43% 할인 판매 중이다.

보양식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ml×5팩, 15인분)는 4만원, 소용량 세트(350ml×5팩, 10인분)는 2만4500원, 이포의 원안인 방부제를 뺀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 선물세트(6봉)는 2만770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갈빗살을 사용한 '칠절한우떡갈비세트'(3박스, 1.08kg)는 4만4500원,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나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세트(3박스, 1.08kg)는 2만77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히트 상품인 한우불고기1호(1.8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3.6kg)는 12만원, 술래양념1호(16대)는 8만원에 판매한다. 인기 메뉴로 구성된 술래실속(술래 16대+한우불고기 1.8kg)은 13만원,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장조림 등 2.4kg)는 14만원에 살 수 있다.

새해를 맞아 재테크에 대해 고민인 고객을 위해 이달 말까지 휴게이지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하면 경매를 알고 나서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된 39세 아줌마의 성공 노하우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와 30년 동안 한 우물을 판 주식 전문가가 쓴 부동의 1위 주식투자서 '주식투자 우작정 따라하기' 등 길벗 추천 도서를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jrmei@

7080 복고풍 선물세트 정겹네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모델들이 소면세트, 소금세트, 고추장세트 등 복고 콘셉트의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복고 트렌드에 맞춰 1970~80년대에 주고받던 정겨운 전통 장류 세트와 소면, 전통 떡 세트 등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제공

겨울 어깨 울리는 오십견 방치 금물

나이 무관하게 발병 추세 초기에 적극 치료 자세를

새해가 되고 한 살 더 나이를 먹으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오십견'으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이는 오해다. 서희수 웰튼병원 어깨관절센터 소장은 "겨울은 추위로 인해 근육이 쉽게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어깨질환의 고통이 심해지는 시기다. 더욱이 50대에 주로 발병해 오십견으로 이름 붙여진 '유착성 관절낭염'은 천비람과 함께 찾아오는 대표적인 어깨질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깨관절을 감싸는 관절낭의 염증 및 유착으로 인해 생기는 오십견은 최근 삼십견, 사십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젊은 층에서도 종종 발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십견이 발병하면 어깨관절이 굳어져 운동 범위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좁아진다. 단순한 어깨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악화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십견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 오십견 역시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오십견을 치료할 때는 주사 및 약물요법,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통증이 극심할 때는 '체외충격파 시술'이나 '관절내시경 시술'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 /황재용기자

초등생 방학숙제 콘텐츠 해법스터디서 무료 제공

천재교육은 31일까지 초등 학습 사이트 해법스터디에서 초등학생 방학 숙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방학생활 점검표, 일기,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독서록, 체험학습 보고서, 가족신문 만들기, 봉사활동 소감문, 탐구활동 보고서 등 주제별 숙제 해결 방법과 예시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법스터디는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새학년도 학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학습 특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www.hbstudy.co.kr

스탠포드 호텔 서울 뷔페 50% 할인 '午五' 프로모션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스탠포드 호텔 서울(www.stanfordseoul.com/seoul)은 다음달 28일까지 뷔페 레스토랑 카페 스탠포드에서 말띠 프로모션인 '오(午)오(五)모여라'를 진행한다.

양력 말띠 해에 태어나고 이름에 오자가 들어가는 고객은 무료로 뷔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뷔페 식사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5, 10, 15명 등 5의 배수 숫자로 레스토랑에 방문하면 5명 중 1명에게 무료로 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02-6016-0080

타파웨어 크레용 보온병 이달 한정제품으로 출시

생활용품 타파웨어브랜즈는 1월 한정으로 '크레용 보온병'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크레용 보온병은 용량 색상이 다양하며 등산, 개인용 텀블러, 아유식 보온병 등 휴대 용도로 적합하다.

타파웨어 특유의 강력한 밀폐력으로 오랜 시간 보온을 유지하며 휴대 시 생길 수 있는 흔들림에도 용보가 샐 염려가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크류 타입의 마개로 세척도 간편하다. 문의 080-023-8811

"자유분방한 극중 소정, 딱 저예요"

영화 '플랜맨' 한지민

단아한 이미지가 강한 한지민(32)은 9일 개봉될 영화 '플랜맨'에서 삼삼발랄한 매력을 뽐낸다.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인디밴드 보컬 소정 역을 맡은 그는 "실제 성격은 소정에 가깝다. 그동안 단아하게 보였다면 실제 모습을 잘 감춰온 것 같다"고 살짝 웃으며 감춰온 매력을 드러냈다.

6개월간 기타 수업 - 직접 노래도

극중 1분 1초까지 알람시계에 맞춰 살아가는 한정석(정재영)을 변화시키며 사랑에 빠지는 역할을 연기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정재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한지민은 자신의 매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UV가 만든 개성 강하고 신나는 삽입곡을 직접 기타를 치며 불러 웬만한 인디밴드 보컬 못지않은 무대 매너를 뽐낸다. 영화 촬영 반년 전부터 연습생처럼 열심히 보컬과 기타 수업을 받은 덕분이다. 보컬과 기타 둘 다 이번에 처음 배워봤다고 했다.

"기타가 재미있어서 유튜브 동영상까지 찾아보며 연습했어요. 액착이 생겨 계의 일정까지 들고 갈 정도였죠. 반년 정도 지나니 손에 굳은살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조보라서 영화에는 제가 내는 소리를 담지 못했어요. 다만 노래는 썩 잘 부르지 못했어도 제 목소리랍니다. 평소 목소리가 저음이라 톤을 높여 불렀어요."

노래하고 기타도 쳐보고 싶은 호기심에 출연을 결심했다는 그는 "막상 해보니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감정 연기까지 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 부담이 됐다. 감독님이 노래는 너무 못하면 다른 사람 목소리로 하면 된다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했다"고 쉽지 않은 연습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즉흥적이고 주위 시선 의식 안해

극중 소정처럼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편이다. "계획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수첩에 적는 습관도 없다"면서 "특히 이쪽 일은 계획해서 욕심낸다고 되지 않는 것 같다. 작품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몰입해서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다른 여배우들은 시선을 의식해 집에만 있는다고 하는데 전 그렇지 않아요. 젊을 때 집에만 있으면 나이 들어 후회할 것 같아서 돌아다니며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죠. 저는 길을 다녀도 귀찮게 하거나 예의 없게 대하는 분들이 없어요. 요즘은 언니 조카와 노는 게 가장 좋답니다."

원래는 사람들 앞에서 소심한 편이었다고 했다. 2003년 드라마 '올인'의 송혜교 아역으로 데뷔해 '부활' '이산' '옥탑방 왕세자'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성장하면서 성격이 많이 씩씩해졌다.

그동안 소지섭 정우성 박유천 등 인기 많은 미남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 그는 이번엔 유부남 배우 정재영과 만나 어느 때보다 즐겁게 촬영했다. "정재영 선배가 '여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며 늘 띄워주곤 했다"면서 "민망하긴 했지만 훨씬 편하고 연기 호흡이 잘 맞았다"고 고마워했다.

12년차 배우 - "결혼은 아직"

연예계 대표 동안이라 어린 줄만 알았는데 어느덧 배우 생활 12년 차. 서른두 살이란다. 아직 어려 보인다는 말에 "30대가 된 후 볼살이 많이 빠졌다. 볼살 통통했던 예전이 그립다"면서 "몸이 예전같지 않아 매일 비타민과 수분크림을 꼭 챙긴다"고 말하며 웃었다.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다. "결혼이라는 말이 아직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엄마도 별로 재촉하지 않고요. 결혼이란 게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분하고 속 깊은 마음이 팔두에 묻어나왔다. '이산'에 함께 출연한 이서진이 최근 tvN '꽃보다 할배' 출연 당시 가장 착한 여배우로 꼽을 만했다. 이서진의 말이 나오자 "진짜 착한 배우는 현장에서 단역배우들까지 일일이 다 챙기는 서진 오빠"라고 화답했다.

평소 법륜 스님의 좋은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긴다는 한지민의 새해 소망은 별것 없다. 그저 지금처럼 소소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소망이다. 그러면서 "노희경 작가님이 예전에 '복을 많이 지으라'는 새해 인사를 하더라. 정말 복을 받는 것보다는 짓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새해 복 많이 지으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글 유순호 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마운해리코드(데이빌) 스튜디오 / 박은지

배용준 '4월 결혼이라뇨?"

원조 한류스타 배용준(사진)이 연애 중인 구소희씨와의 4월 결혼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6일 "배용준씨가 4월에 결혼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올해 연애 결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의 주간지 여성자신은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배용준이 구씨와 4월에 결혼한다고 보도했다.

배용준은 지난달 14세 연하의 구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해 화제를 모았다. 구씨는 LS그룹 구자균 부회장의 자녀로 두 사람은 4개월째 교제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배용준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대가 일반인임을 감안해 따뜻하게 지켜봐달라"며 구체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하희철기자

보이그룹 야수 본능 걸그룹 섹시 본색

올 상반기 화려하게 컴백한 동방신기와 데뷔를 앞둔 신인 보이그룹 가물치(갓세븐 왼쪽부터), 올겨울 섹시 열풍을 주도할 레인보우 블랙·달샤벳, 걸스데이(이상 왼쪽부터)

K-팝 스타들이 새해 벽두부터 원초적 매력으로 무장하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데뷔 11년째를 맞은 동방신기를 비롯해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 갓세븐과 크레용팝의 후예 가물치 등 보이그룹은 '남성미'를 앞세워 여심 공략에 나선다. 반면 걸스데이와 레인보우·달샤벳은 저마다 성숙한 섹시한 매력을 앞세워 남심을 흔들고 있다.

◆보이그룹 남성미

6일 정규 7집 '텐스'를 공개한 동방신기는 이에 앞서 3일 KBS2 '뮤직뱅크'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컴백무대를 열었다. 타이틀곡 '썸씽'은 동방신기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장르인 스윙재즈로 다이내믹하고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곁들였다.

20일 데뷔 음반을 공개하는 갓세븐은 JYP가 2PM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보이그룹이다. 2PM처럼 남성미를 강조한 화려한 퍼포먼스가 핵심이다. 갓세븐은 가라테 우슈 태권도 같은 무술에 비보잉을 결합한 고난도 안무를 보여줄 예정이다.

크레용팝의 소속사가 야심차게

동방신기 카리스마 무대 갓 세븐 무술+비보잉 안무

준비한 보이그룹 가물치도 주목할 선언이다. 지난 5일 공개된 데뷔 타이틀곡 '뭣 모르고'의 티저 이미지에서 이들은 특공대를 연상시키는 의상과 강렬한 눈빛으로 남성미를 강조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크레용팝의 '빠빠빠'에 도입한 8비트에 더욱 현란한 리듬이 가미된 곡"이라며 "강렬한 기타 사운드와 비트가 이 곡의 핵심이다. 가물치의 카리스마 또한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걸그룹 섹시 대전

섹시 여가수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걸스데이는 '절제된 섹시미'를

달샤벳 노출 없는 성숙미 레인보우 블랙은 '19금'

강조했다. 의상부터 파격적인 변화를 줬다. 3일 뮤직뱅크 컴백 무대에서 신곡 '썸씽'을 선보인 이들은 붉은 드레스에 옆트임을 줌으로써 각선미를 드러냈다. 멤버들은 "이번 앨범에는 절제된 매력을 강조해 한층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샤벳은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 손잡고 8일 내놓는 미니앨범 'B.B.B'로 색슈얼한 매력을 발산한다. 노출은 줄이고 성숙한 여성미로 무장했다. 소속사는 "이번 앨범 최고의 변신은 의상이다. 보디 컨셔스룩으로 상의는 재킷, 하의는 긴 팬츠다. 노출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레인보우는 20일 '19금' 섹시를 예언 콘셉트로 한 4인조 프로젝트 유닛 레인보우 블랙을 출격시킨다. 최근 공개된 사진 속 멤버들은 다리와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은밀히 드러내(도둑 촬영)한 듯한 콘셉트로 눈길을 끌었다. 소속사는 "관능적이고 품격 있는 섹시함의 정석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성호기자 ysw@metroseoul.co.kr

류현진·큐브 가수 합작 자선음원 '작은달' 공개

'괴물' 투수 류현진(27·LA 다저스)이 참여한 두 번째 자선 음원이 공개됐다.

6일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류현진은 포미닛의 허가윤, 비스트의 양요섭, 비투비의 서은광, 신지훈과 함께 신곡 '작은달'을 발표했다. '류-큐브 기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이 곡은 '제2의 류현진'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기획됐다.

류현진은 지난달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과 빛을 보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응원하는 댄스곡 '스마일 어게인'을 발표했다. 이들의 재능기부로 얻어진 수익금은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된다. /유순호기자 sunno@

연기돌로 거듭나는 제국의 아이들

제국의 아이들 멤버들이 아이돌의 화려함을 벗어던지고 연기자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요즘 가장 눈에 띄는 멤버는 임시완이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적도의 남자'를 통해 연기자로서 가능성을 내비친 그는 스크린 데뷔작인 영화 '변호인'에서 또 한 번 호평을 이끌어냈다.

극중 용공조작사건에 휘말린 국밥집 아들이자 공대생인 진우 역할을 맡아 멍한 눈빛과 피폐한 몸으로 고문당하는 모습을 열연했다.

MBC '일밤-진짜 사나이'에서 '아기 병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형식도 연기자로서 바쁘게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얼마 전 SBS '상속자들'을 통해 연기돌로 눈도장을 찍은 그는 뮤지컬 '심청사'에서 주인공 달타냥 역을 맡아 무대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저스틴'에서는 주인공 저스틴을 맡아 목소리 연기를 펼쳤다.

앞서 영화 '회사원'과 드라마 '천명: 조선판 도망자 이야기'에 출연한 김동준(사진)도 6일 첫 선을 보인 네이버 웹 드라마 '후유증'으로 생애 첫 주연에 나섰다. 극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뒤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면서 다른 삶을 사는 고등학생 안태웅을 연기했다.

제작진은 김동준에 대해 "후유증 이후 겪는 심리적 불안정과 병로 연기, 그리고 고등학생으로서의 모습까지 연기를 통해 담아냈다. 아이돌 출신이라고 쉽게 믿기 힘들 정도"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건희기자 ark0427@

'노래가 늘었어' 음원 상위권

실력파 여가수 에일리와 휘성의 합심작 '노래가 늘었어'가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에일리의 디지털싱글 '노래가 늘었어'가 음원 공개와 함께 멜론·엠넷·네이버 뮤직 등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프로듀서 휘성이 작사·작곡한 '노래가 늘었어'는 록발라드로 이별의 아픈 마음을 노래로 위로하며 자자 잊어간다는 여자의 마음을 다뤘다. '노래가 늘었어'에서 선보이는 에일리의 호소력 짙은 음색은 기존의 강렬했던 보이스보다 오히려 더욱 강한 여운을 남기며 장르를 뛰어넘는 팝적조 같은 매력을 전한다.

에일리의 소속사 측은 "'노래가 늘었어'는 휘성이 군 입대 전 녹음한 곡으로 전역 후 마무리 작업을 거쳐 3년 만에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윤기자

tvN 월화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3

너를 만나,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매주 **월,화** 밤 9시 40분 tvN 방송 / 2014년 1월 13일 첫방송

김소연 | 성준 | 남궁민 | 왕지원

tvN | JSpictures

한국배우 최초로 '소후 패션 어워즈' 참석한 조인성

배우 조인성(사진)이 한국을 대표하는 패셔니스타로 2014 소후 패션 어워즈에 참석했다.

소후 패션 어워즈는 중국 패션 산업의 표준이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상식이다. 6일 상하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안젤라베이비·오기륭·장량·한경·임지령·바세가와 준 등 아시아 스타들 외에도 디자이너·사진작가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인성은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뛰어난 패션 스타일을 선보였고 많은 남성이 그의 스타일을 시도하는 등 중화권에서도 열풍을 일으켰다. 이런 패션 열기를 반영하듯 조인성은 소후 패션 어워즈에 한국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초청됐다.

2014 소후 패션 어워즈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중계됐으며 CCTV·BTV 등 중국 6개 TV 채널을 통해 중국 전역에 녹화 중계된다. /유순호기자 suno@

이다해 FNC엔터와 계약으로 마음고생 덜어
유아인 UAA에 새 둥지…해외활동 날개 달아

이다해와 유아인이 나란히 새 둥지를 찾았다.

이다해는 씨엔블루·FT아일랜드 등이 소속된 FNC엔터테인먼트와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얼마 전 소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연예인 성매매 루머에 언급돼 마음고생을 한 그는 이번 계약으로 안정을 찾고 국내 연기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수들뿐 아니라 배우 박광현·윤진서·이동건·정혁, 방송인 송은이 등이 소속된 FNC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발돋움하고자 실력 있는 연기자이자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다해를 영입했다"고 전했다.

유아인은 강동원·송혜교가 있는 연합 기획사 UAA(United Artists Agency)와 계약했다. UAA는 6일 "유아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유아인은 20대 배우 중 독보적인 연기력을 갖고 있다. 모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이번 계약 건으로 해외활동에 날개를 단 것으로 보인다. UAA는 세계적인 프로듀서 테렌스 창이 설립한 ATN(대국동진), 파리에 본사를 둔 유럽 에이전시 에비지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 및 활동을 돕고 있다.

새 소속사를 찾은 유아인은 공백을 끝내고 차기작을 선정해 복귀할 계획이다. 현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그는 "UAA의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신뢰한다. 안정된 상태에서 작품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응원을 부탁했다.

/박건형기자 pkh427@metroseoul.co.kr

주상욱·살렉스·존박(왼쪽부터)이 13일 첫 방송되는 tvN '로맨스가 필요해 3'에 카메오로 출연해 웃음을 선사한다.

'로맨스가 필요해 3' 돌풍 예고

초호화 특별 출연진에 다양한 볼거리 무장

케이블 채널 tvN이 '로맨스가 필요해 3'(이하 '로필 3')로 2014년 연초부터 드라마 시장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첫 방송될 '로필 3'는 시즌제로 탄탄한 마니아층을 확보했으며 초호화 특별 출연진까지 확보해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홈쇼핑 회사를 배경으로 사랑과 성공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여자들의 리얼한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 김소연을 비롯해 성준·남궁민·윤승아·박효주·박유환·왕지원·임세랑 등이 출연한다.

김소연은 33세의 홈쇼핑 MD로 순수하고 따뜻한 성격이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까칠하고 예민한 성격이 된 신주연 역을 맡았다. 그동안 '아이리스', '투윅스'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검사 프린세스'에서 상큼 발랄한 모습을 선보였던 그의 연기 변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구가의 서'에서 여울(수지)의 호위무사 곤을 맡아 우직한 매력을 발산한 성준은 김소연의 상대역으로 출연해 여심 사냥에 나선다.

여기에 첫 회부터 주상욱·할렉스·존박 등 화려한 카메오 군단을 투입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선보인다.

'로필 3' 제작진은 "드라마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3명의 캐릭터를 자세하게 밝힐 순 없지만 김소연의 현재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감초 캐릭터로 활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희철기자

'왕가네 식구들' 국민 드라마 됐다

시청률 40% 돌파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사진)이 시청률 40%를 돌파하며 국민 드라마 대열에 합류했다.

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일 방송된 '왕가네 식구들'은 40.7%(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4일 방송분이 36.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춤했지만 5일 방송분에서 급상승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 드라마임을 증명했다.

'왕가네 식구들'이 이처럼 국민 드라마 대열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따뜻함' 때문이다. 극 초반 시월드 대신 '처월드'를 조명하고 파벌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시청률 파라세를 이어갔다. 당시 과도한 설정으로 막장 드라마란 반대 여론도 거셌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송 초반과 달리 점점 변화하는 과정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분개하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의 개과천선을 기다리며 훈훈한 가족극을 기대하고 있다.

총 50부작으로 기획된 '왕가네 식구들'이 남은 방송 11회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훈훈한 가족애를 어떻게 완성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용기자 yew@

배우 유연석 빕스 새 얼굴

배우 유연석(사진)이 빕스타일의 전유물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모델로 발탁됐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첫사랑에게 순정을 바치는 로맨틱한 남자로 여심을 사로잡은 유연석은 국정 이미지를 이어 빕스의 모델로 활동을 시작한다.

소속사는 "최근 진행한 지면 촬영에서 유연석은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가 하면 '응답하라 1994'의 야구 유니폼을 착용한 채 다양한 포즈를 취해 눈길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식업체들은 비·현빈·조인성·김수현 등 남성 스타들을 모델로 내세워 경쟁을 벌여왔다. /유순호기자

여름 극장가 '사극대첩' 뛰어든 '군도'

7월 개봉 확정 … 하정우·강동원 강렬한 포스 담은 포스터 첫 공개도

톱스타 하정우·강동원 주연으로 화제를 모으는 블록버스터 사극 '군도: 민란의 시대'(이하 '군도')가 치열한 내전이 벌어질 여름 극장가 전쟁에 나섰다.

투자·배급사 쇼박스는 6일 "'군도'가 7월 개봉을 확정했다"고 전하며 하정우·강동원의 개별 포스터를 첫 공개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00억원대의 제작비를 투입된 이 영화는 지난해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로 474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형 범죄영화의 새로운 시대를 연 윤종빈 감독의 차기작이다. 양반과 탐관오리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조선 철종 10년을 배경으로 백성의 편에 서고자 했던 의적 무리 군도의 활약상을 그렸다.

최종병기 활' 김한민 감독의 '명량' 회오리바다'와 한국판 '캐리비안의 해적'을 표방한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등 여러 편의 제작비 100억원대 사극이 맞붙게 될 올여름 극장가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의 주인공인 강동원과 하정우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앞서 공개된 단체 포스터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강동원은 이번 개별 포스터에서 처음으로 강렬한 극중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매서운 표정으로 날렵하게 장검을 내리긋는 모습으로 아름다움과 우서움이 공존하는 캐릭터를 설명했다.

그는 제대 후 본격적인 스크린 복귀작인 이 작품에서 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대감의 서자이자 조선 천지에 대적할 자가 없는 무관 출신 조윤 역할을 맡아 악역으로 나선다.

또 다른 포스터는 하정우를 필두로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오는 군도 무리의 모습을 담았다. 액션 활극다운 역동성과 말의 잔근육 하나까지 살아있는 생생함이 돋보이는 컷이다.

하정우는 조윤에게 가족을 잃은 뒤 복수를 위해 군도 무리에 합류하는 도치를 연기한다. 말타기·칼 싸움 등을 꾀자에 전작 '베를린'에서보다 강도 높은 액션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화는 지난해 11월 1일 모든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이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변호인' '용의자' 흥행 투톱

주말 극장 매출 64% 차지 … '변호인' 이르면 이번주 1000만 관객 돌파

한국 영화 투톱 '변호인'(사진 왼쪽)과 '용의자'(오른쪽)가 지난 주말 1000만 관객을 합작하며 겨울 극장가를 거침없이 질주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변호인'은 지난 3~5일 123만7008명을 모았다. 지난달 18일 개봉해 3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킨 '변호인'은 누적 관객 786만189명을 기록했다.

여전히 빠른 속도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변호인'은 다음주 중이나 주말께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 주연의 '용의자'는 지난 주말 시흥긴 54만2730명을 불러 모았다. 지난달 24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309만9987명을 기록했다. 박스오피스 1·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변호인'과 '용의자'는 지난 주말 44.3%와 19.4%의 매출 점유율을 각각 기록하는 등 주말 전체 극장 매출의 63.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흥행을 기록 중이다.

한편 같은 기간 벤 스틸러 주연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23만6401명,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엔더스 게임'은 18만8966명을 동원해 그 뒤를 이었다.

/유순호기자 suno@

임권택 102번째 '화장' 시작했다

본격 촬영 … 상반기 개봉

임권택(사진)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이 새해를 맞아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제작사 명필름은 6일 "'화장'은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과 안성기·김규리·김호정 등 연기파 배우들의 만남으로 일찍이 화제를 모은 작품으로 1일 첫 촬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장'은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작인 김훈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로 죽어가는 아내와 연정을 품고 있는 젊은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취화선' 이후 11년 만에 임 감독과 호흡을 맞추는 안성기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의 임원 오상무 역을 맡았고, 임 감독의 '하류인생'에 출연했던 김규리는 10년 만에 다시 만나 화장품 회사 경력직 신입사원 추은주를 연기한다.

'화장'은 3월 초 촬영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 개봉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송일국 9년만에 스크린 나들이

'타투이스트' 연쇄살인마역

배우 송일국(사진)이 9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송일국은 문신을 소재로 지독한 복수를 그린 스릴러 '타투이스트'의 주인공 한지순 역에 캐스팅됐다. 영화 '작업의 정석'에서 여심을 사로잡는 매력남으로 등장했던 그는 이번 작품에서 젠틀한 이미지 뒤에 무서운 살인 본능을 숨긴 연쇄살인마로 변신한다.

독립 장편영화 '사람을 찾습니다'로 파격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으며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최우수작품상과 테살로니키 국제영화제 예술 공로상을 수상한 이서 감독이 이번 작품을 연출한다.

과거의 상처를 지닌 미모의 타투이스트 조수나 역에는 윤주희가 캐스팅돼 송일국과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한편 송일국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한국의 대표 술 막걸리 알리기에 나서 6일 월스트리트저널 유럽판 1면에 모델로 등장했다.

/유순호기자

'버터플라이 프로젝트' 조슬예·최정열 감독 선정

CJ E&M이 신인 감독을 지원하는 '2013 버터플라이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조슬예 감독의 '염아의 침묵'과 최정열 감독의 '글로리데이'가 선정됐다.

CJ E&M은 두 감독과 기획개발 파트너십을 맺고 시나리오 개발비를 지원하며 결과에 따라 순제작비 3억원 내외의 제작·투자·배급 계약을 체결한다.

'염아의 침묵'은 다세대주택에서 일어난 아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웃들의 수상한 행적을 좇는 스릴러로, 잘 짜여진 스릴러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공포로 치환되는 매끈함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리데이'는 열아홉 살 네 친구의 운명을 뒤흔드는 하룻밤 사건을 지금까지의 청춘영화와는 다른 시선으로 흥미롭게 그려내 호평받았다.

'버터플라이 프로젝트' 2회 수상자인 최안섭 감독의 장편 데뷔작 '소녀'는 지난해 11월 개봉됐다. /유순호기자

<기성용-지동원>

'Ki-Ji' 환상콤비 다시한번

내일 캐피털원컵 준결승 맨유전 출전 가능성 ■ 김보경·이청용 FA컵 32강 대결할 듯

코리안 프리미어리거들이 잉글랜드 축구 컵대회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선덜랜드의 기성용(25)과 지동원(23)은 두 경기째 동시 선발 출전하며 남다른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5일 잉글랜드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 칼라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3-1로 승리를 이끌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후반 14분까지 함께 뛰며 승리에 힘을 보태며 팀을 32강에 안착시켰다. 기성용과 지동원은 2일 아스톤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에 나란히 선발 출전해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당시 팀은 0-1로 패했다. 사흘 만에 다시 동시 선발 출전하며 팀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성용 지동원 김보경

선덜랜드는 피터버러 유나이티드(3부리그)와 케더민스터 해리스(5부리그)의 승자와 맞붙는다.

앞서 기성용은 캐피털원컵에서 연장 극적인 결승골로 강호 첼시를 꺾고 팀을 4강으로 이끈 주역으로 주목받았다. 8일 오전 4시45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준결승 1차전을 치를 예정이라 기성용과 지동원 콤비가 또 한번 승리의 아이콘으로 떠오를지 관심을 모은다.

김보경(25, 카디프시티)과 이청용(26, 볼턴)은 25, 26일 중 볼턴의 리복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FA컵 4라운드(32강)에서 코리언 더비를 펼친다.

김보경은 4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FA컵 3라운드에 선발로 출전해 팀 승리를 견인했다. 이청용은 블랙풀과의 3라운드에 교체 선수로 투입됐고, 여전히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어 김보경과의 맞대결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박주영(29)의 소속팀 아스널은 코번트리시티(3부리그)와 만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흥행 빨간불 켜진 프로야구

새해 프로야구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굵직한 국제대회 세 개가 스포츠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2월에는 소치 동계올림픽, 6월에는 브라질 월드컵,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모두 야구 흥행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소치 올림픽은 2월에 열려 김연아, 이상화 등의 금메달 소식에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조이목 순위 경쟁 와중에 열리는 월드컵도 커다란 악재다. 한 달 동안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흥행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아시안게임은 대회 기간 동안 리그를 중단한다.

이래저래 달갑지 않은 2014년이지만 오히려 프로야구의 내성을 시험받는 계기다. 흥행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며 빠른 야구가 필요하다. 시간을 잡아먹는 불필요한 행동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활약까지 더해져 2009년부터 급격한 상승 곡선을 긋던 관중 수도 지난해에는 줄어들었다. 한국 야구의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러면 국제대회 10개가 열리더라도 끄떡없는 한국 야구가 될 것이다.

/이천호 야구전문기자

에브라 "박지성 매일 그리워"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파트리스 에브라(33, 사진)가 절친 박지성을 향한 그리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에브라는 6일 맨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박지성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친구였다. 그래서 매일 박지성을 그리워한다"며 "많이 보고 싶다. 박지성이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뛸 때는 자주 만나고 통화도 했다"고 덧붙였다.

에브라는 박지성보다 1년 늦은 2006년 맨유에 입단해 가장 가까운 팀 동료로 우정을 나눠왔다.

/유순호기자

'죽음의 레이스' 다카르 랠리 개막 2주간의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5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북부 로사리오를 출발해 19일 칠레 중부 발파라이소에 도착하는 2014년 다카르 랠리가 개막했다. 전 세계 50여 개국 435명의 선수가 참가해 9000km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이번 대회에서 한 참가 자동차가 로사리오~산루이스 1차 구간의 산악지역을 달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추신수 "텍사스 동료에 알릴 것"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특급 스타 추신수(32, 텍사스 레인저스, 사진 오른쪽)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홍보대사로 나섰다.

추신수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김진선(왼쪽)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부터 대회 홍보대사 위촉패를 받았다. 스포츠 스타로는 처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를 맡게 된 추신수는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이번 직책을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추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큰 대회를 유치한 것이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며 "미국에 간다면 텍사스 동료에게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이런 큰 대회를 하게 됐다고 꼭 알릴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추신수는 지난해 신시내티 레즈에서 20홈런-20도루, 100볼넷-100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텍사스와 7년간 1억3000만 달러(약 1371억원)의 대형 계약을 맺었다.

/김민준기자 yaw@